

# '한사람 보다는 우리'

## 전주지역자활센터 신년회 성료

전주시가 올해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8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전주시네마에서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센터 종사자, 시 관계자 및 운영위원, 자활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신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사람 보다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이날 신년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업장 분위기 조성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활사업에 참여해주신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황금돼지해를 맞아 진정한 자립기반이라는 복(福)이 주민들의 품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998년 9월 개소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8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전주시네마에서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센터 종사자, 시 관계자 및 운영위원, 자활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신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 이래 8개 자활기업과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현재 190여명의 저소득층 참여 주민들의 취업 및 창업 등 홀로 설 수 있도록 자활을 돕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임실 강진면 김순자씨, '사랑의 국수' 기탁

임실군 강진면에 거주하는 김순자(65)씨가 지난 17일 강진면사무소를 찾아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국수 48사리를 기탁했다.

면은 기탁자의 의견에 따라 이날 전달받은 국수를 각 경로당에 2사리씩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면 새마을 부녀회장인 김씨는 평소에도 봉사활동이나, 마을일 등에 술선수 범하며 수시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순자 회장은 "겨울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봉사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성석 강진면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김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 새해 첫 월례회의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신호)는 지난 17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자치위원 및 교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전년도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사업인 입학전승관 꽃길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등에 관한 보고 및 2019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안신호 위원장은 "지난 한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2019년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교월동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자치 역량 강화의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물론 주민 화합을 위해 매주 1회씩 새로 신설된 실버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노래교실과 찾아가는 수치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임실 삼계면 청년회장과 방범대장 이·취입식

임실군 삼계면 청년회장과 자율방범대장 이·취입식이 지난 16일 삼계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이취입식에는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의회 최환수 부의장, 박진두 임실부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임한 김정기 청년회장과 조경래 방범대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준 회원과 대원 및 지역주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새로 취임한 김진덕 청년회장과 조광래 방범대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임기 동안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역의 치안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준환 삼계면장과 김갑식 삼계면발전협의 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이재석 회원과 양정연 대원에게는 우수회원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성덕면 복지기동대, 새해 첫 회의 통해 조직개편 돌입

김제시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경국)는 지난 18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복지기동대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개편방안, 2019년 봉사활동 계획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에 추진된 봉사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9년 소외계층 봉사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 보다 활기찬 복지기동대 봉사활동이 되자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복지기동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대원 영입, 대원봉사능력 향상 방안, 조직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하였으며, 2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한 후 2019년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매진하자고 결의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경찰, 순찰차량 활용 홍보 조형물 제막식

부안경찰서는 지난 17일 순찰차량을 활용한 홍보 조형물을 청사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홍보 조형물로 쓰인 순찰차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에서 3만천여건의 112신고와 순찰활동을 펼치고 퇴역한 차량으로 부안군의 수호신으로 재탄생하여 경찰서 외벽에 설치됐다.

경찰은 "이번 홍보물이 밤낮으로 활동하는 부안경찰의 활동을 표상하고,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표현한다"며 "부안의 랜드마크가 되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부안경찰의 24시간 쉼 없는 주민 안전 치안활동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재 부안경찰서장은 "이번 행사로, 주민들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훈 기자

## 인사

### 군산시

◇사무관(지방 5급)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회계과장 김홍규 ▲항만해양과장 김관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수도과장 전종식 ▲육구읍장 김영섭 ▲수송동장 김경배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대아면장 정귀영 ▲경안동장 박미숙



## 순창 동계면민회, 새해 정기총회 성료

순창군 동계면민회(회장 양진업)가 지난 17일 동계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6회 동계면민회 기념 및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2018 회계년도 결산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양상구 면장, 양준섭 농협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술 전회장의 개회선언, 면민현장 낭독, 기념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의 동계면민회 정관일부 개연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은 부회장 3명 늘려 총 15명 규정, 면민회장의 체육회장 겸임규정 명문화, 면민의장 부상금액 상향조정, 운영위원을 대의원으로, 이사를 위원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이날 제26대 면민회장으로 양진업(71, 용동마을), 수석부회장은 유일용, 부회장은 정성근, 양준섭, 이용원, 한기수, 최승기, 오수환, 김정기, 양승호, 양경호, 북병갑, 양해욱, 윤지호, 왕병덕, 장경숙, 김시는 정태조, 진재현, 사무국장은 양득춘씨를 선임했다.

양진업 신임면민회장은 "면민회장으로써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실감하며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하다"며 "동계면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경찰, 졸업식 뒤돌이 예방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초·중·고 졸업식을 맞아 남원과 등 5개 학교에서 감악적 졸업식 뒤돌이 예방을 위해 경찰, 청소년지도위원, 패트론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졸업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교측과 면밀한 협조를 통한 사전교육 및 졸업식장 내의 순찰강화와 같은 체계적 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졸업 후 신학기 전까지 학원가·공원·청소년비행지역·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홍범 서장은 "새롭게 출발할 청소년들을 응원한다며, 지역사회와 협업체 건설한 졸업문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보호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경찰 마이파출소, 주민 공감 치안활동 전개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는 지난 18일 마을회관 및 상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와 더불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을 찾아 겨울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행시 인도로 다니고 아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문구로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 않도록 실 예를 들어가며 적극 홍보했다.

마이파출소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겨울철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유념할 것을 특히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순창경찰, 음주운전 예방 특별 교육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18일 경찰서 계장 및 탐장, 입직 5년 미만 신입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조직 전반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무위반 사례와 그러한 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안민현 경무과장은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 대부분이 지나친 음주가 원인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경찰서장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로 순창서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성실이 임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